

1일 Market Index			
↑ 코스피	2804.31	↑ 코스닥	847.15
	(+6.49)		(+6.71)
↑ 금리 (미국 9년)	3.210	↑ 환율 (원-달러)	1379.30
	(+0.028)		(+2.60)

metro® 경제

휘발유 41원 오른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
02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4년 7월 2일 화요일

클라우드 컴퓨팅·초개인화 부상... 저장 수요 '대폭발'

차세대 반도체 전쟁 2막

<下> 낸드 플래시

AI 확산에 많은 데이터 저장 필요 3D 낸드, 내년 DRAM 시장 초월 삼성·SK, 고용량 낸드 '승부수'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확산과 초개인화로 인해 더욱 빠르고 많은 저장 용량을 요구하는 디지털 기기의 발전에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낸드플래시(NAND Flash) 메모리는 전원이 끊겨도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데이터 저장 용량이 크고 빠른 읽기/쓰기 속도를 자랑한다. 셀(cell)이라는 저장 단위가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전자기억장치(EEPROM)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1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스마트폰, 태블릿, SSD 등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대규모 데이터 연산이 필요해지면서 빠른 읽기/쓰기 속도가 장점인 낸드플래시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낸드플래시 시장은 2010년대 급성장과 역성장을 반복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세계 낸드 시장은 2018년 632억 1000만 달러에서 2019년 449억 5000만 달러로 28.8% 급락했다. 그러나 2020년 577억 8490만 달러, 2021년 686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2022년 다시 585억 1300만 달러로 감소했다.

향후 낸드 시장은 급성장하여 DRA

M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2025년 3D 낸드 시장이 843억 7800만 달러로 DRAM 시장(833억 9700만 달러)을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낸드 가격의 급변화는 주요 수요처인 데이터센터와 모바일 기기 등 ICT 인프라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공급 과잉과 부족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차세대 반도체로 3D 낸드가 주목받는 데에는 전 산업계를 걸친 급격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으로 인한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연산을 위한 메모리 수요의 급성장이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전환하는 산업은 데이터 연산과 저장을 위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필수로 한다. 연산을 위한 DRAM 시장과 함께 장기 저장을 담당할 3D 낸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증권사 리포트들은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자체 서버를 설치하여 보안 강화하려는 온프레미스향(向)으로 AI 서버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3D 낸드 시장의 성장을 점친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전통적인 3D 낸드 필요 전자기기들의 발전과 더불어, 기존 백색가전으로 불리는 냉장고, 세탁기부터 커피 머신 등 가전의 빠른 발전도 시장 성장을 예고한다. 최근 가전업계에서 부는 이용자 생활 방식에 최적화된 초개인화 또한 IoT 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수립 DS투자증권 연구원은 "AI 서버를 신규 증설할 때 데이터 전송 속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역대 최대'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시내의 한 가게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 자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3월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모두 1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연체 규모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8면) /뉴시스

도 등 고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SSD가 필요하다"며, "영상, 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로 훈련 방식이 변화하면서 SSD 수요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비정형 데이터는 텍스트 데이터보다 더 큰 저장 용량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도 "AI 관련 훈련 및 추론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위해 대규모 언어 모델(LLM) 및 추론 모델을 위한 데이터 저장에 더 큰 용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3D 낸드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면서 현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2의 메모리 전쟁이 예상된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솔리다임 포함)는 기업용 SSD 시장에서 각각 47.4%, 30.4%의 점유율을 기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퀴드러플레벨셀(QLC) 기반 최신 9세대 V낸드를 올해 3·4분기에 양산할 예정으로, QLC 낸드는 데이터 저장 단위인 셀 하나에 2진수 4자리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기술이다. 기존 트리플레벨셀(TLC) 낸드 대비 동일 칩 크기로 저장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SK하이닉스도 지난 3월 기업용 SSD 'PCB01'의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PCB01의 연속 읽기와 쓰기 속도는 각각 초당 14GB, 12GB로, 이는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1초 내에 구동하는 수준의 속도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전력 효율도 전작 대비 30% 이상 개선됐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거야 소통 강화 정무장관 부활

대통령실, 11년만에 신설 방침

대통령실은 1일 국회의와의 소통을 전담할 '정무장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무장관 부활은 2013년 특임장관이 폐지된 이후 11년 만이다. 장관급의 채널을 개설해 거야(巨野)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질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무장관의 역사는 오래됐다. 이승만 정부 출범 직후 설치된 '무임소(無任所) 국무위원(정부의 특정한 부처를 담당하지 않는 국무위원)'이 있었고, 1970년 무임소 장관실이 설치되며 하나의 정식 부처로 자리잡았다. 이후에는 제1·2 무임소 장관실로 불리됐고, 제2무임소 장관은 여당의 당무를 겸하기도 했다.

무임소 장관은 1981년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무장관으로 개편됐고, 노태우·김영삼 정부 당시에도 존재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으나 박근혜 정부 때 다시 폐지됐다.

정무장관의 역할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여야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전두환 정부 때 노태우, 노태우 정부 때 김윤환, 김영삼 정부 때 김덕룡·서청원, 이명박 정부 때 이재오 등 당대 정권 핵심 실세가 맡았다. (2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반도체 끌고 車 밀고... 무역흑자 6년만에 최대치

상반기 수출 3348억弗 '역대 2위' 15대 주요 품목 중 9개 품목 증가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3개월째 흑자 흐름으로, 흑자규모는 6년 만에 최대치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3348억달러를 기록했다. 분기기준 수출 증가율도 작년 4분기 이후 확대 추세다. 무역수지는 2018년(+311억달러)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 규모인 231억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품목별로 상반기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9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가격 상승과 서버 중심 전방산업 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52.2% 증가한 657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2위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하이브리드차(+19.5%)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인 370억달러(+3.8%)를 기록했다. 선박 수출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온 호조세가 올해 상반기(118억달러, +28.0%)에도 지속됐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지역 중 6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대 미국 수출은 역대 상반기 중 최대치인 643억달러(+16.8%)를 기록, 2021년부터 4년 연속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대 중국 수출도 전년 대비 5.4% 증가한 634억달러로 우리 수출 증가세를 이끌어가고 있다.

상반기 수입은 6.5% 감소한 3117억달러를 기록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 수입이 소폭 증가(440억달러, +3.9%)했으나, 가스(-27.9%)·석탄(-23.5%)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10.0% 줄었다.

6월 수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570억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많고, 9개

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특히,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올해 최대치인 26억5000만달러(+12.4%)로 2022년 9월(26.6억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철강(25.6억달러, -10.8%)과 이차전지(7.4억달러, -20.5%) 등은 수출단가 하락으로, 일반기계(41.1억달러, -8.1%) 등 수출은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6월 수입은 7.5% 감소한 490억7000만달러, 무역수지는 80억달러 흑자로 2020년 9월(+84.2억달러) 이후 45개월 만에 최대규모를 달성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인요한 "오로지 원희룡 당대표 당선만 생각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오세훈 "시장 임기 반환점 도는데 대권 운운?... 도리 아냐"

▲ 원, 한동훈 연일 저격... "2017년 탄핵 공멸 어게인" 공한중에 떨고 있어"
▲ 나경원 "원·한 갈등 점입가경... 보나 마나 새누리당 시즌2"



▲ "어디서 샅대질이야" 고성 오간 국회 운영위원회 /사진 뉴시스
▲ 친명 김민석 "이재명과 정권교체, 제 역할 대해 소통"... 최고위원 출마

유류세 인하폭 축소... 겨우 잡은 소비자물가 다시 들썩이나

정부, 소비자물가 2%대 목표
휘발유 유류세 리터당 41원 오르고
국제유가 당분간 오름세 지속 전망
물가안정화 기조에 '걸림돌' 생겨

정부는 소비자물가를 2%대에 묶어 두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물가안정화 기조에 걸림돌이 생겨났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물가 자극 요인으로 대두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1일 유류세의 인하 폭 축소가 시행에 들어간 데다, 서아시아에서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전면전 가능성까지 최근 불거진 탓이다.

올해 2분기 들어 안정화 흐름을 보이던 휘발유 값은 지난달 중순 이후 오름세로 돌아섰다. 게다가 기름값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이는 정책이 이날 시작됐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기존 25%에서 20%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7%에서 30%로 각각 축소된 것이다.

이는 소매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하 폭 조정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가 리터(ℓ)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올랐다. 인하 폭 축



1일 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축소됐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경유 가격이 상승하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경유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가량 가격이 올랐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표시된 유가정보. /뉴스시

소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의 하락 ▲소비자물가의 안정세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국제유가는 반등 추세에 있다. 한 달 전쯤인 6월5일 배럴당 74.07달러까지 하락했던 미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는 28일 81.5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1일(현지시간) 장중에도 81달러 안팎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배럴

당 78달러 내외에 머물던 북해산브렌트유는 85달러 선까지 치고 올라갔다.

국제유가는 중동 지정학적 위험을 시시각각 반영해 왔다.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군사갈등이 격화하면서 상대 기지를 겨냥한 로켓·드론 공격 등이 오갔다. 양측의 경고성 발언 수위도 점차 높아지면서 확전 조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미국 등 서방 곳곳에서 나온다.

국내 기름값도 국제유가 상승분에 연동되기 시작했다. 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이날 오후 2시40분 기준 ℓ당 1677.89원으로 집계됐다. 전 저점인 1648.27원(6월18일)에 비해 ℓ당 29.62원(1.79%) 올랐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 13일 연속으로 상승했고,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간 과일·채소 값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을 다소 억제했다. 지난 2월과 3월에 3% 선을 웃돌던 물가 상승률은 4월과 5월 들어 각각 2%대로 내려앉았다. 문제는 금명간 발표될 6월 수치가 아닌 7월과 8월 등 3분기 물가 수준이다. 뛰는 유가는 전체 물가 상승을 크게 견인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최근 펴낸 '2024년 2분기 국내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중동지역에 추가적으로 원유 수급에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올해 하반기 글로벌 경기회복세 확대에 따른 수요증가 가능성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 물가의 경우 농수산물 중심으로 일부 변동성은 있었으나, 최근 들어 2%대에 안착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도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과 물가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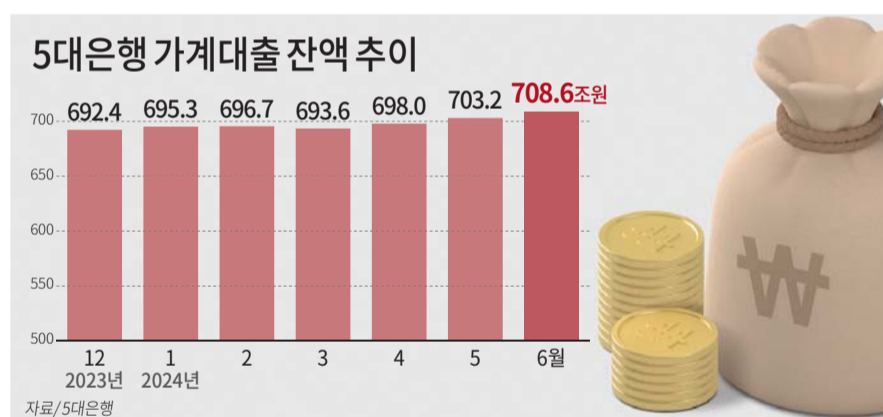
/세종=김연재 기자 kys@metroseoul.co.kr

영끌 막차수요 몰렸다... 가계대출 한달새 5.3조 증가

5대은행 가계대출잔액 708.6조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미루고
주담대 금리 하락, 주택매매 늘어
"수요 더 몰릴 가능성 배제 못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달 새 5조3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내려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한도 축소 조치를 오는 9월까지 미루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막차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708조 5723억원으로 5월 말보다 5조3414억원



늘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월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3월 말 693조5684억원에서 4월 말 698조3000억원으로 늘었고, 5월 말에는 703조 2308억원으로 불어났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는 이유는

주택매매가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는 지난해 12월 2만6934호에서 올해 1월 3만2111호, 2월 3만3333호, 3월 4만233호, 4월 4만4119호로 증

가한 뒤 5월 4만3278호로 소폭 줄었다. 주택매매거래는 1~2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3~4월 주택매매 거래가 주담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담대 금리도 2년 만에 고정금리를 중심으로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혼합·주기형)는 지난달 말 기준 연 2.94~5.76%로 집계됐다.

고정금리는 금리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은행채) 5년물의 금리가 하락하며 떨어졌다. 은행채 5년물(무보증·AA A) 금리는 지난 28일 기준 3.451%로 올해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5월말(3.803%)과 비교하면 0.352%포인트(p) 떨어졌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오는 9월로 미뤄지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추겼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뒤 금리가 상승할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 한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오는 8월까지의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해당월 예금은행의 금리차가 1.5%포인트(p) 내외로 발생할 경우 금리에 0.38%p를 추가했지만, 9월부터는 금리를 0.75%p 더해야 한다. 9월부터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영끌 막차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담대 증가세는 대출금리보다도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면서 "주택가격이 회복되며 매매가 늘고, 스트레스 DSR 2단계도 미뤄지면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막차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김연재 기자 kys@metroseoul.co.kr

23조 사들인 외국인, 상위 4종목 주가 평균 30% ↑

거래소, 외국인 매수 작년의 2배
개인 투자자는 7.4조 팔아치워
SK하이닉스 67%, 현대차 45% ↑

올 상반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순매수 상위 4개 종목'의 주가가 평균 3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규모로 국내 대형 우량주를 사들이며 수익률에서 발군의 성과를 거둔데 이어 하반기에도 반도체 경기 호조세와 밸류업 프로그램 등의 호재에 힘입어 수익률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연초부터 6월까지 한국 증시에서 23

조282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조517억원의 순매수 금액 대비 약 2배 이상 늘어났다. 외국인들의 코스피 지분율은 연초 32.72%에서 6월 말 35.63%까지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들은 7조3798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약 7조9971억원이었고 이어 SK하이닉스(약 3조8039억원), 현대차(약 3조4541억원), 삼성물산(약 1조3201억원) 순이다. 상반기 동안 코스피는 약 4.79% 상승했으며, 외국인 집중투자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도 지지부진한

코스피지수와 달리 가파른 우상향세를 보였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4개 종목의 주가는 상반기에만 평균 31.39%가 올랐다. 삼성전자는 3.82%로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SK하이닉스 67.13%, 현대차 44.96%, 삼성물산 9.65% 등은 급등했다. 이외에도 순매수 상위 10권 내 종목인 HD현대일렉트릭이 27.12%, 기아 29.3%, 알테오젠 184.77%, 크래프톤 45.40% 등도 주가가 뛰었다. 외국인들은 정부 주도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식과 반도체 주식을 끌어담으면서 상당한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보여진다. /신하은 기자 godhe@

사실상 정무수석 역할... 필요성 의문 제기도

>> 1면 '거야 소통 강화...'서 계속

정무장관이 사실상 정무수석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것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실 정무수석보다 총위가 높은 장관 단위에 정무적 소통을 맡겨, 국회의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무장관은 사실상 정무수석의 역할과 다를 바 없고, 전문분야를 관장하는 것이 아닌 데다 그간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가 임명됐다는 점을 들어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김연재 기자 kys@metroseoul.co.kr

한 야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실상 정무수석의 기능이 유명무실했던 점을 고려하면 정무장관의 임명이 상황을 바꿀 카드가 될 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울=김연재 기자 kys@metroseoul.co.kr

인간 중심 모빌리티 실천... 전 세계 이끄는 '파괴적 혁신가'

HYUNDAI
MOTOR GROUP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은 회장은 새해 메시지에서 “올해를 한결같고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지속성장해 나가는 해로 삼아,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체질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범(汎)현대가를 창업한 고(故) 정주영 선대회장과 현대차그룹을 글로벌 빅5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시킨 정몽구 명예회장 그리고 현재 현대차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의선 회장은 전통 자동차기업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주영·정몽구·정의선 회장으로 3대째 이어진 경영 스타일은 기술과 품질에 대한 열정이라는 DNA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정의선 회장은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현대차그룹을 글로벌 톱 3로 도약함과 동시에 친환경차 시대에 리딩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세계 시장 질주... 현대차·기아, 매출 30조 시대 눈앞

2020년 현대차그룹 회장직에 오른 정의선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고객·혁신·변화·나눔 등 지향점을 제시했다. 이후 고급화와 전동화, 세계화에 집중하며 2년만에 글로벌 차량 판매 세계 3위라는 실적을 이뤄냈다.

정 회장, 기업가 정신 '도전·혁신' 고급화·전동화·세계화 역량 집중 2년만에 글로벌 판매 3위 달성

고급 승용 부문은 제네시스로, 전기차는 현대차 아이오닉 시리즈, 기아 EV 시리즈로 세계 시장에 안착시켰다. 특히 신형시장은 물론 미국 등 세계 각지에 생산 공장을 구축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같은 성과를 이끌어 내기까지 정 회장은 묵묵히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경영을 보고 배웠다. 그는 1999년 현대차 구매실장으로 입사해 현장에서 경영 수업을 받았다. 이후 영업지원사업부장(상무), 국내영업본부부장(전무), 현대차·기아 기획실장(부사장), 기아 해외담당 사장 등을 거쳐 2009년에 현대차그룹 부회장직에 오르며 본격적인 경영권을 잡았다. 이같은 경영 수업을 받으면서 정 회장은 튀거나 도발적이기

보다 '안정적이고 차분함'을 유지했다. 제네시스 EQ900 출시 행사에도 정몽구 명예회장의 한결같은 뒤에서 묵묵히 경영을 배웠다. 이후 2020년 정 명예회장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현대차그룹 회장에 오른다.

정 회장의 자동차에 대한 열정은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현대차그룹 회장 취임 1년여만인 2021년 정 회장은 영국 자동차전문지 오토카가 주관하는 '2021 오토카 어워즈'에서 이고니스 트로피를 수상했다. 이시고니스 트로피는 오토카 어워즈 중 최고 영예의 상으로 오토카 측은 "지난 10년 현대차그룹은 현재 세계 굴지의 자동차 그룹으로 성장했으며, 정의선 회장이 이러한 변혁의 원동력이었다"며 "10년 전만 해도 현대차·기아는 흥미로운 브랜드가 아니었지만 정의선 회장 리더십으로 주요 선두 업체들과 대등하게 경쟁하며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 회장의 최대 업적은 취임 3년 만에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토요타와 폭스바겐그룹에 이어 글로벌 톱3 완성차 업체로 성장한다. 수익성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현대차·기아의 2년 연속 역대 영업이익을 이끌었다.

이같은 성장세는 2023년으로 이어졌다. 지난해는 전년도보다 6.7% 성장한 730만 2451대를 판매하며 톱3 체제를 공고히 유지했다. 높은 판매실적을 바탕으로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도 역대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합산 26조 7348억으로 약 30조 시대를 눈앞에 뒀다. 이는 현대차·기아가 2011년 합산 영업이익 11조 5279억으로 처음 10조 원

을 돌파한 뒤 12년 만에 20조 원의 벽을 돌파한 것이다.

이에 따른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정 회장은 미국 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모터트렌드가 선정한 '2024 자동차 업계 인물 50인' 중 5위에 이름을 올렸다.

◆ 전기차 등 '퍼스트무버' 공고히

"전기차 시대에는 모든 업체가 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다. 전기차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돼야 한다. 시장과 산업을 리드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변화하자."

정 회장이 현대차그룹을 세계 톱3 자동차 회사로 역대급 실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술의 진화와 전동화, 미래 모빌리티가 자리하고 있다.

정 회장은 제네시스 브랜드를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과 세계 무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오랜 기간 고성능 브랜드 'N'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며 현대차그룹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 단계 높였다.

특히 제네시스 브랜드는 국내는 물론 북미와 유럽지역에서의 프리미엄 차량으로 안착했다. 또 N은 현대차그룹의 고성능차에 대한 갈증을 완벽하게 해결했다. 현대차 고성능 N 브랜드는 최근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레이스'에서 클래스 우승과 함께 9년 연속 완주에 성공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또 정 회장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며 세계 시장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1990년대부터 전기차를 연구해왔던 현

대차는 전기차시장이 개화하자 대규모 투자를 배팅해 '아이오닉' 시리즈를 내놓았다. 기아도 EV 라인업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전동화 전환에 적극 대응하며 토요타를 따돌리고 앞선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 회장은 전기차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구간에 진입했음에도 생산라인과 신공장 건설 계획을 유지하기로 결단했다. 그러면서도 빠르게 증가하는 하이브리드차 수요에도 신차 출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캐즘의 한파에도 올해 1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정 회장은 친환경차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부터 29년만의 새 공장인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을 짓고 있다. 정 회장은 이곳을 전기차 생산 허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또 현대차그룹은 미국 전기차 전용공장 건설도 애초 2025년에서 2024년 10월로 앞당겼다. 연간 30만대 규모의 공장은 올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특히 미국 전기차 공장에서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생산과 함께 수소 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수소 등 미래 모빌리티 대규모 투자 고성능 N 브랜드 출시... 기술력 입증 친환경시대 리딩기업 자리매김

현대차그룹은 미래차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세계 전기차시장에서 '퍼스트 무버'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현대차는 현재 서울시 강남구에 짓고있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105층이 아닌 55층으로 낮춰 짓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4년 한전 부지를 사들여 그룹의 초고층 통합사옥을 세우겠다는 결정을 10년 만에 바꾼 것이다. 이는 보여주기보다 회사에 맞는 내실 다지기로 보인다. 송파구 롯데타워(123층)가 이미 '국내 최고' 타이틀을 선점한 만큼 초고층을 고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막대한 투자금을 건축비용에 사용하기 보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고도 성장을 이끌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퍼스트 무버'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지난 2022년 정의선 회장이 '세계 자동차산업의 위대한 파괴적 혁신가들(The World's Greatest Auto Disruptors 2022)' 시상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의선 회장이 중동지역 건설 현장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지난 4월 정의선 회장이 인도 하리아나주 구르가온시 현대차 인도권역본부 델리 신사옥에서 타운홀미팅을 한 뒤 직원들의 셀피 요청에 기념촬영 하고 있다.

22대 국회서도 난항... 與 “구조개혁 동반” vs 野 “先 모수”

9월 정기국회서 ‘연금개혁’ 논의 여야, 개혁 추진방향 놓고 대립 심화 전문가들 “시급한 모수개혁 우선”



22대 국회로 넘어 온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부. /뉴스

지난 21대 국회에서 불발돼 22대 국회로 넘겨진 국민연금 개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수준을 놓고 벌여졌던 여·야 간 견해차가 22대 국회 들어 여당의 ‘구조개혁 동반’과 야당의 ‘모수개혁 우선’의 대립으로 확장하면서 파열음이 커져가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9월 1일 개최하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금개혁 추진 방향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구조개혁 동반’을, 야당은 ‘모수개혁 우선’을 견지하면서 여·야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여당의 ‘구조개혁 동반’ 방안은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과 함께 기초연금 대상 조정·가입연령 조정 등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동시 추진하

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개혁안이 아직 없어 논의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야당의 ‘모수개혁 우선’ 방안은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별도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논의됐던 만큼 빠른 추진이 가능하지만, 향후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여·야는 올해 초 시민참여 토론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소득대체율·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연금개혁을 한 차례 추진했다.

지난 4월 개최된 시민참여 토론 결과 ‘보장강화 우선(현행 40%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 현행 9% 보험료율을 13%로 인상)’ 방안이 과반의 선택을 받았다.

여·야는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합의했지

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의 ‘43%’ 방안과 야당의 ‘45%’ 방안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여당이 소득대체율 44%까지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제시했지만,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은 연금특위 해산을 끝으로 무산됐다.

5월 말에 이르러 야당이 ‘소득대체율 44%’ 방안을 받아들일겠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은 최종 불발됐다.

여·야는 연금개혁을 오는 9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의 첫 정기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 논의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협의보다는 주도권을 쥐기 위한 준비에 힘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7일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을 위원장으로 단독 연금개혁특위를 출범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이달 중 구체적인 구조개혁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공식 입장을 결정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금 공부’에 나섰다. 박주민 의원(은평갑)은 지난달부터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들을 초청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한 차례 기회를 놓친 만큼, 연금개혁이 더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혁의 시급성을 따지자면 소득대체율 44%안으로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다양한 입장차가 존재하는 구조개혁은 특위를 구성해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별로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시민 공론화 결과에 부합한 개혁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가도 일단은 야당 대표가 수용 의사를 밝힌 소득대체율 44%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이후 추가 모수개혁이나 구조개혁 방안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이정식 “외국인근로자 안전대책 이달 발표”

(고용노동부 장관)

화성 아리셀 화재 중수본 2차 회의 유가족 지원·재발 방지에 만전 지시

외국인 근로자 등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등 정부지원사업도 전면 개편한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을 맡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수본 2차 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에서 다수 희생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방안

을 충분한 실태파악과 현장 및 협·단체 의견 등을 토대로 마련하겠다”며 “개선대책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대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동종·유사업체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대책’은 관계부처 간 밀도있게 논의해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이 장관은 “안전교육은 확대·강화하고 작업환경의 위험요인 개선 지원을 촘촘히 하는 한편, 건설업 등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사용하는 취약 분야에 대

한 지원·점검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에 취약해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국 전·후로 안전교육을 하고, 16개 언어로 교육자료를 보급하는 등 노력을 해왔으나, 이번엔 다수 희생자가 발생한 만큼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는 설명이다.

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내실화하고, 이번 사고를 통해 문제점이 파악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등 정부지원사업도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5월 모바일쇼핑 거래액 15.5조 ‘역대 최대’

통계청, ‘5월 온라인쇼핑 동향’

올해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또다시 20조 원을 넘어섰다. 온라인을 통한 수입차 구매가 늘면서 자동차 관련 항목이 75%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을 통한 거래액이 역대 최대인 15조5000억 원에 달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거래액은 20조8652억 원으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7.7% 증가했다.

상품군별로, 전년동월대비 의복(-4.7%) 등에서 감소했다. 반면, 음식료품(16.1%)과 여행 및 교통서비스

(11.7%),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75.0%) 등은 증가했다. 고물가에 음식료품 온라인 구매 추세가 이어지는 반면 의복에 대한 구매는 감소했다.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관련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구성비는 음식료품(13.9%), 여행 및 교통서비스(11.4%), 음식서비스(11.3%)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5조5144억 원으로 7.8% 증가했다. 이는 2017년 1월 관련 통계를 개편한 이래 최대 수준이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74.4%를 차지했다. 전년 동월(74.3%)에 비해 0.1%포인트(p) 늘어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행복을 빛내고 도민을 잇다!!

행복을 빛어내는 도민중심 경기도의회
남녀노소 모두에게 이어집니다!!





빌드업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빌드업은 함께 미래를 생각합니다
서로의 속도가 달라도 함께 밀고 당기며
더 가치 있는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지구를 아끼는 그린에너지,
새로운 소재로 진화하는 배터리,
생명을 살리는 바이오 기술,
미래를 오늘로 만드는 Si와 반도체까지

**SK와 파트너들의 원팀 플레이로
내일을 빌드업 합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안 위한 소지 거부권 행사 않으면 직무유기”

정진석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野 추천만으로 이뤄진 임명절차 대통령 공무원 임명권 훼손·박탈 공수처 수사 후 특검 해도 늦지 않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야당 단독으로 발의하고 처리하는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 첫 현안질의를 열었다. 원 구성 이후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이 복귀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현안질의를 중요 주제는 야당이 추진하는 순직해병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이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 비서실장에 “공수처가 수사에 미진하다고 하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특검을 완전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비서실장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특검법이 성안돼야 한다”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야당의 추천만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훼손하고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

에 어긋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 법안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사항임에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속해있는 정당인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안에 대해) 합의한다면 이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도 했다.

정 비서실장은 순직해병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과실치사 부분은 경찰에서, 외압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호 대령(전 해

병대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사건이다. 이는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실장은 특검은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 자체가 상설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특검이 도입되면 그 즉시 공수처가 한 모든 수사를 특검에 넘겨야 해서 상설특검 위에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에 미흡하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순직해병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에 격노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7월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격노한 것을 보았느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그날도 무슨 주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름 휴가 직전으로 기억하고 있다. 저희 앞에선 화낸 적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는 류의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느냐”고 재차 묻자, 김 차장은 “저도 (들은 바) 없고 그 주제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고 했다. 해당 발언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냐고 고 의원이 묻자 김 차장은 “언론에서 하도 많이 나와서 알게 됐다”고 답했다. /빅테크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김민석 의원 서울 영등포구을·4선 | 한준호 의원 경기 고양시을·2선 | 이성윤 의원 전북 전주을·초선

김민석·한준호·이성윤, 野 최고위원 출사표

집권플랜, 언론개혁, 尹 투쟁 내세워 “이재명과 함께 당이 뭉쳐야” 강조

제22대 더불어민주당 총선 선거대책 위원회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4선)과 MBC 아나운서를 지낸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2선), 서울 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초선)이 1일 8·18 민주당 전당대회에 열리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민석 의원은 ‘집권플랜본부장’, 한준호 의원은 ‘언론개혁’, 이성윤 의원은 ‘대통령실과의 투쟁’을 내걸었다. 또한 이들은 ‘이재명 1극 체제’ 우려에 대해서는 “오해”라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당이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실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준비된 집권 세력만이 다가올 폭풍 정국을 헤쳐 갈 수 있다”며 ▲당원주권 ▲정책협약 ▲예비내각 등의 집권플랜 3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당원주권과 관련해서는 “당원 권한 확대를 교육 확대, 경선 확대에 확장해 탄탄한 대중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책협약에 대해서는 “갈등 조정의 사회협약 원리와 국내외경험에 근거한 각종 정책협약을 추진해 다원화 시대의 문제 해결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말했다. 예비내각에 대해서는 “당 내외 인재 발굴을 체계화해 광범한 인적 풀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고위 산하에 3대 과제 등을 추진할 집권플랜본부를 설치하고 민심을 받들어 최고위원 2년 임기 내 정권교체의 길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더 단단하게 해달라. 일 잘하는 최고위원 구성해 달라”며 “당대표와 협력해 집권 준비를 담당할 집권플랜본부장도 선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언론개혁’을 내세운 한준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에 맞서 싸웠던 체계 정치는 ‘어두웠던 과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해답’이라고 최고위원 출마의 변을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이재명 독주’라는 비판에 대해 “수많은 당원동지들이 이재명 전 대표를 지도자로 선택했고 여전히 굳건하게 지지하며 그 선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최고위원 후보들 모두 ‘총성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할 진정한 지도자로 이재명 전 대표를 선택한 것”이라며 “그한결같은 선택들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정권교체’라는 성과로,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증명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과의 투쟁’을 내세운 이성윤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흔히 말하는 ‘흙수저’ 공무원이라 골프나 주식과도 거리가 멀다”며 “정치 검사들이 보기에는 검사 같지 않은 자로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검사로서 바른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검찰 정권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며 “윤석열 검찰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제가 수권정당 민주당 정권 교체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심동일체’가 돼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원동일체’가 돼 당원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배신의 정치’ ‘공한증’... 與 당권주자 난타전

한동훈 “일부 후보들 ‘공포 마케팅’ 지지자도 쫓아내는 자해의 정치”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등 공세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한동훈 대선론’을 깨기 위해 ‘배신의 정치’ 공세를 지속하자,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공포 마케팅은 있던 지지자들도 쫓아내는 빨셈과 자해의 정치”라며 역공에 나섰다.

당정 관계를 두고 당권주자 간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한 후보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 후보들이 ‘공포 마케팅’에 여념이 없다”며 “이는 구태이자 가스라이팅이고, 확장어컹, 있던 지지자들도 쫓아내는 빨셈과 자해의 정치다. 전당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당대표 후보의 ‘배신’ ‘절연(絶尹·尹 대통령과 절연)’ 등 공세로 인한 것이다.

나경원 후보는 “특정인에 대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이해될 수 있다”면서도 “그 특정인을 위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한 후보를 겨냥했다.

원 후보는 “배신하지 않을 대상은 국민뿐이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배신, 당에 대한 배신은 별 거 아니라는 말로 들린다”고 한 후보를 직격했고, 윤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세 후보가 한 후보를 향해 ‘배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후보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전당대회 야상이 ‘한동훈 대 반(反)한동훈’으로 이어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트라우마가 있는 전통적 보수층의 정서를 건드려 한 후보의 지지세를 약화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나 후보는 ‘당원 24년’ ‘정통 보수’ 등을 강조하며 지난해 정치에 입문한 한 후보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원 후보는 친윤(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으며 ‘대통령실-여당 원팀’을 주장하고 있다. 보수 진영 내에서 한 후보의 약점이라 지적할 수 있는 ‘경험’과 ‘당정 관계’를 들어 공격하고 있는 셈이다. /서예진 기자 syj@

이 같은 공격이 계속되자 한 후보 캠프는 전날(6월 30일) “아무리 ‘공한증(恐韓症)’에 시달린다 해도 협박과 분열의 정치는 안 된다”고 응수했다. “공한증”은 본래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잘 이기지 못하는 현상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한동훈에 대한 공포 현상’으로 쓰였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다른 후보들이) ‘나중에 탄핵까지 할 거다’라는 식의 공포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제가 막을 거다.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반박했다.

나 후보를 향해서는 “그때는 일종의 학교폭력 피해자였는데 지금은 학교폭력 가해자 쪽에 서고 계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 후보가 친윤계 초선 의원들의 ‘연관장’으로 인해 출마를 포기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또 원 후보를 향해서는 “지난 2018년 무소속으로 탈당할 상태에서 제주지사로 나오셨다. 그때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syj@

개혁신당, 조직위원장 1차 54명 임명

서울 영등포갑에 허은아 대표
경기 화성을에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은 1일 서울 영등포갑(허은아 대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천하람 원내대표), 경기 화성을(이준석 의원) 등 조직위원장 54명을 임명했다.

개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 의를 열고 1차로 86명 중 54명의 조직위원장 임명을 의결했다.

이번에 이름을 올린 조직위원장에는 지도부 중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성근 최고위원(경기 화성정), 이주영 정책위의장(서울 송파갑) 등이 있다. 또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을), 양향자 전 원내대표(경기 용인

갑) 등 이전 지도부도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김철근 사무총장(서울 강서병)·김성열 수석대변인(서울 양천갑)을 비롯해 정재준 전략기획부총장(서울 강서을)·이경선 조직부총장(서울 서대문갑)·이성진 홍보부총장(충남 천안병)·김범준 당대표 비서실장(경남 거제) 등 주요 인사들도 조직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번에 임명된 조직위원장 54명 중 1960년대생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1980년대생은 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연소 조직위원장은 1994년생 송창훈 경기 용인정 조직위원장이다.

한편 개혁신당은 내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정밀 심사를 통해 나머지 조직위원장도 인선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



돌봄 신청하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현대차, 인니 생산·판매 밸류체인 구축... 아세안 공략 박차

HMMI 공장 가동률 100% 돌파
코나 EV, 인도네시아산 배터리 적용
특화차량 등 현지 판매 전략 고도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세안(ASEAN·동남아 국가연합)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건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를 교두보로 삼아 아세안 지역 공략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해외 생산법인 가운데 가장 높은 가동률을 자랑하는 인도네시아 생산법인(HMMI)과 현지 합작법인에서 생산된 배터리셀 본격 생산을 시작으로 현지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아우르는 밸류체인 구축에 집중할 방침이다. 여기에 현재 가동 중인 베트남 생산법인(HTMV)과 지난해 준공한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까지 인도네시아 및 아세안 지역에서 안정적인 제품 개발, 생산, 판매체제 구축을 통한 차별화를 전개한다는 전략이다.

아세안 공식 포털에 따르면 아세안 전체 인구는 2022년 기준 6억 7170명에 달하며 오는 2050년에는 인구가 8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차는 2022년 9월 인도네시아 브



현대차 인도네시아 생산법인(HMMI) 전경

카시 델타마스 공단 내 HMMI를 준공했다. 약 77만 7000제곱미터(㎡)의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약 15억 5000만달러를 투자하는 HMMI는 현대차그룹 최초로 아세안에 만든 완성차 공장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현재 HMMI에서는 현지 특화 전략차종인 크레타와 ▲다목적차량(MPV) 스타게이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쉐타페 ▲아이오닉5 등 4종의 차량을 만들고 있다.

HMMI는 가동 2년여 만에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기준 HMMI 생산능력은 2만 300대, 생

산실적은 2만 2520대를 기록하며 110.9%의 가동률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공장(114.9%)을 제외하고 해외공장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1분기 50.3%를 기록했던 HMMI 공장 가동률은 같은 해 4분기 63.6%를 기록하더니 올해 1분기 100%대를 넘어서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HMMI의 누적 공장 판매대수는 올해 5월 말 기준 19만 2792대로 집계됐다. 6월 수치가 더해질 경우 상반기를 전후로 누적 20만대 돌파가 유력하다. 올해 1~5월 HMMI 수출 물량도 2만

2880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1만 8984대) 대비 20.5% 증가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현지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를 생산, 판매하는 등 아세안 밸류체인 조성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 카라왕 지역의 신산업 단지(KNIC)에 건설한 배터리셀 합작공장(HLI그린파워)이 지난해 6월 완공된 이후 전기차 시장 공략에 한층 강화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HLI그린파워의 인도네시아산 배터리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현대차 모델은

신형 코나일렉트릭(EV)이다. 코나 일렉트릭 생산은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완성차 업체 중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셀부터 완성차까지 현지 생산 및 판매 체계를 갖춘 유일한 기업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대차는 지난해 7475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44.3%) 1위를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대차는 코나 일렉트릭을 앞세워 전기차 선도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한편, 특화 차량 등 현지화 판매 전략으로 아세안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2017년 베트남 탄콩그룹과 베트남 남딘성에 생산합작법인 'HTMV'를 설립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는 HTMV 2공장을 준공하는 등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싱가포르 서부 주류 혁신지구에서 제조 설비, 연구개발(R&D) 공간, 고객 체험 시설을 갖춘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를 구축하며 혁신적인 모빌리티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온, 비상경영 돌입... “흑자달성때까지 임원 연봉 동결”

흑자전환 총력... 조직개편 본격화
이석희 CEO “자강불식으로 위기극복”

SK온이 비상경영을 선언했다. 조직을 효율화하고 흑자전환 달성까지 모든 임원의 연봉을 동결한다. 최근 전기차 시장 둔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해 변화가 필요한 모든 영역을 과감하게 바꾸고 더 높이 도약하겠다는 취지다.

SK온은 전체 임원회의를 열고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다고 1일 밝혔다. 각 지역에 분포된 사업장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진행했다.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회사의 경영 상태와 조직개편 방향을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석희 SK온 CEO

SK온은 변화된 경영환경을 반영, 조직을 효율화한다. 업무영역과 진행절차, 그에 따른 자원 배분부터 일하는 방식까지 변화가 필요한 모든 영역을 과감하게 바꾸기로 했다.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위기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극복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기 위해서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최고생산책임자(CPO),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C레벨 전원의 거취를 이사회에 위임했다. 최고관리책임자(CAO)와 최고사업책임자(CCO) 등 일부 C레벨직을 폐지하고, 성과와 역할이 미흡한 임원은

연중이라도 보임을 수시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올해 분기 흑자전환에 실패할 경우 내년도 임원 연봉을 동결하기로 했다. 임원들에게 주어진 각종 복리후생 제도와 업무추진비도 대폭 축소한다. 현재 시행 중인 해외 출장 이코노미석 탑승 의무화, 오전 7시 출근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SK온은 다만 핵심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는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객사에 대한 상시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 조직을 권역별로 분리·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본'에 충실한 기업문화를 위해 전체 구성원들이 노력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을 각자 결정하는 유연 근무제도는 유지하되 근무 시간에는 업

무에 몰입하도록 하고,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재택보다는 사무실 근무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SK온 이석희 CEO(사진)는 “임원과 리더들부터 위기 상황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겠다”며 “경영층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각오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 성과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위기는 오히려 진정한 글로벌 제조 기업으로 내실을 다지는 기회”라며 “우리 모두 ‘자강불식(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음)’의 정신으로 패기 있게 최선을 다한다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동국제강그룹 ESG 경영 체제 고도화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이 그룹 분할 후 각각 ESG 보고서를 냈다.

동국제강그룹 철강사업법인 2개사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이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3년 6월 동국제강 그룹 분할 후 첫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다. 각사는 ESG 경영 목표·현황·성과 등을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했다.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그룹 분할로 독립적인 경영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각기 특성에 맞는 ESG 경영 활동을 지속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박대성 수습기자 iunmns@

애경케미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애경케미칼이 ESG 경영 체제를 튼튼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애경케미칼은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는 '더(TH)E! 애경케미칼'이라는 ESG 전략을 공개하며 체계적인 ESG 경영 활동에 매진해 왔다.

이번 보고서는 GRI 등 ESG 글로벌 공시기준을 준수해 작성했으며 전문검증기관으로부터 제3자 검증을 완료했다. 보고서 전문은 애경케미칼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차현정 기자

두산에너지빌리티, 분당복합발전소 현대화 사업 수주

한국남동발전 2600억 규모 계약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가스터빈을 포함한 복합발전소 주기기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한국남동발전과 2600억원 규모의 분당복합 현대화사업 1블록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1993년과 1997년 2차에 걸쳐 준공된 분당복합발전소 1·2블록을 고효율,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분당복합발전소 조감도 /한국남동발전

두산에너지빌리티는 380MW(메가와트) 규모 H급(터빈 입구 온도 1500℃ 이상)의 고효율 모델) 초대형(300MW 이상) 가스터빈과 스팀터빈, 열공급설

비 등을 오는 2028년 3월까지 분당복합 1블록에 공급할 예정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 BG장은 “국내 340여개 산·학·연이 함께 개발한 K-가스터빈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 가스터빈 산업 활성화에 큰 힘을 불어넣은 한국남동발전이 안정적으로 전력과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향후 5년간 국내에서 가스터빈 관련 7조원 이상 수주를 목표로 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핀에어 북유럽 최고 항공사 선정

핀에어가 고객 만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올해도 북유럽 최고 항공사 자리를 지켰다.

핀에어는 스카이트랙스 2024 세계 항공대상에서 ‘북유럽 최고 항공사’로 14년 연속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2010년 처음 북유럽 최고 항공사로 선정된 이후 단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 없다.

스카이트랙스 항공대상은 항공업계 의 오스카상으로 불린다. 항공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한다.

핀에어는 운항 신뢰성 강화, 디지털 서비스 향상, 고객 선택지 다양화 등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박대성 수습기자

“2000만명 고객 잡아라”... 통신3사, ‘OTT 동맹’ 시너지 확대

OTT 결합상품으로 장기고객 확보
KT, ‘티빙·지니·밀리 초이스’ 출시
SKT, ‘우주패스 넷플릭스’ 선보여
LGU+, U+tv 구독상품 ‘유플레이’

통신3사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동맹을 맺는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동통신 결합 상품을 통해 2000만명에 달하는 OTT 사용자를 고객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OTT 요금 인상으로 불만이 커진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전략으로 장기 고객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1일 애플리케이션(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초 주요 OTT 앱의 순사용자는 2000만명을 넘어섰다. 앱 이용자는 1인당 평균 2.3개의 OTT 앱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통신 3사는 2000만명에 달하는 OTT 이용자를 잡기 위한 결합상품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KT는 이날 5G 데이터 무제한에 티빙과 지니뮤직, 밀리의 서재 혜택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티빙·지니·밀리 초이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월 13만 원(초이스 프리미엄), 월 11만 원(초이스스페셜), 월 9만 원(초이스베이직) 등 3종으로 구성됐다. 3종 모두 지니뮤직과 밀리의 서재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연말까지 웹툰·웹소설을 볼 수 있는 ‘블라이스 셀렉트’도 제공한다.



KT는 5G(5세대 이동통신) 데이터 무제한에 티빙과 지니뮤직, 밀리의 서재 혜택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티빙·지니·밀리 초이스’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K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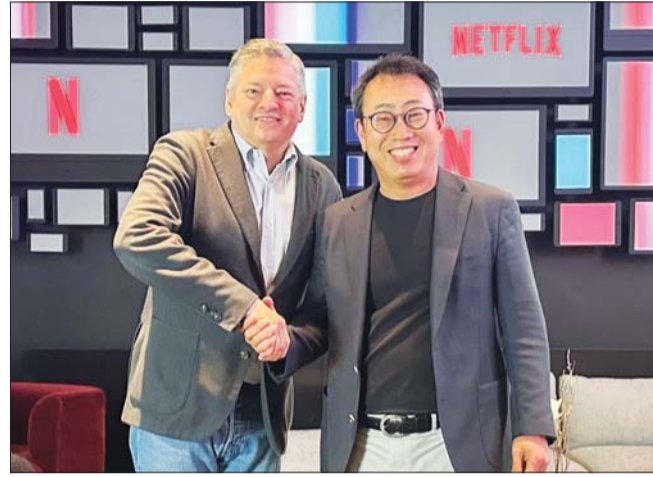
이밖에도 KT는 티빙이나 유튜브 프리미엄을 스타벅스커피 한잔쿠폰과 함께 제공하는 구독 상품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각각 이용할 때보다 2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지난 28일 SKT는 구독 서비스 플랫폼 ‘티(T)우주’에서 넷플릭스를 구독할 수 있는 ‘우주패스 넷플릭스’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넷플릭스와 웨이브를 한번에 제공하며 넷플릭스 광고형 상품과 웨이브를 합쳐 각각 결제할 때보다 10% 저렴한 1만2000원의 가격을 책정했다. 넷플릭스 프리미엄과 웨이브를 결합한 상품은 6% 할인한 2만3400원이다. 중·고가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1만3500원

할인을 추가 제공한다.

앞서 SKT와 SK브로드밴드(SKB)는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소송을 끝내고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도 지난달 넷플릭스 결합 요금제 4종을 출시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도 국내외 인기 콘텐츠를 제공하는 IPTV 구독 상품 ‘유플레이’를 선보였다. 유플레이는 IPTV 서비스인 유플러스티비에서 영화, 해외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7만여편을 제공한다. 넷플릭스 북미판용 드라마인 ‘리버 와일드’뿐 아니라 HBO, 아마존프라임비디오 등의 콘텐츠도 공급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해외 콘텐츠 시청에 대한 니즈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해외 인기 작품을 중심으로 콘



지난달 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넷플릭스 본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오른쪽)과 테드 서랜드스 넷플릭스 공동 CEO가 사업 협력을 위한 미팅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모습. /SKT

텐츠 라인업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최근 통신사들이 OTT 결합 상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하는 이유로 OTT 요금 인상을 지목하고 있다.

실제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등 OTT 주요사들이 요금제를 약 20~60%까지 올리면서 ‘스트림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구가 매달 지출하는 콘텐츠 구입비는 2019년 1만8812원에서 지난해 2만3304원으로 4년 사이에 23.9% 증가했다.

KT 관계자는 “OTT 가격 부담으로 서비스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를 위해 신규 구독팩 상품과 요금제 OTT 혜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U+

피싱·해킹 안심서비스

LG유플러스가 국내 이동통신사 중 최초로 고객의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제공하는 ‘피싱·해킹 안심서비스(보험)’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KB손해보험과 함께 제공하는 피싱·해킹 안심서비스는 피싱·해킹·스미싱·파밍 등 금융 범죄에 따른 고객 피해 발생 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1회 신청 시 4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보험 판매나 중개 방식이 아닌 장기고객 혜택 차원으로 서비스를 무상 제공키로 했다.

대상은 2023년 11월30일 기준 U+ 모바일 이용기간이 2년(730일) 이상인 장기고객 중 ‘개인’ 고객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LG유플러스 공식 고객센터 앱 ‘당신의U+’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남영 기자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위기 극복해 도약 기회로...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

삼성SDI, ‘54주년 창립기념식’
배터리 라인업 확대 중요성 강조

“고속 성장을 기대했던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시장의 일시적 성장세 둔화 등은 우리가 맞이한 새로운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삼성SDI 최원호 사장은 1일 기흥 본사에서 열린 ‘54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세계 정상급 기술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기차·배터리의 수요정체기를 이겨내야 한다는



최원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이 1일 삼성SDI 기흥 본사에서 개최된 ‘54주년 창립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다. /삼성SDI

의미다.

최 사장은 “54년이라는 도전의 역사

속에 회사를 위해 헌신하신 임직원분들과 파트너사들에 감사하다”라며 “삼성SDI는 지난 수년간 모두가 합심하여 미래를 위해 준비해 왔고, 2030년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고속 성장을 기대했던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시장의 일시적 성장세 둔화 등은 우리가 맞이한 새로운 위기”라며 “이러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삼성 SDI는 2030년 시장

을 선도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최 사장은 전고체 배터리와 46과이 원통형 배터리, 건식극판 등 배터리 신기술·신기술의 적기 개발을 비롯해 삼성SDI의 주력 제품인 프리미엄급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부터 LFP 배터리 등 불륨함 제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라인업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자재료 부문 역시 차세대 기술 선점과 신제품의 적기 시장 진입 추진을 당부했다.

/박대성 수습기자 iunm@s



LG유플러스 직원이 고객의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제공하는 ‘피싱·해킹 안심서비스(보험)’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LGU+

한화로보틱스

신임 대표에 정병찬 내정



한화로보틱스는 새 대표이사로 정병찬 최고기술관리자(CTO·사진)를 내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신임 대표는 성균관대 기계공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남가주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화 기계 부문과 모넨텀 부문 로봇기술 팀장을 거쳐 현재는 한화로보틱스의 기술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정 신임 대표는 한화로보틱스의 신기술 개발 전반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올해 출시를 앞둔 신규 협동 로봇 모델 HCR-10L 개발도 정 신임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

한화로보틱스 관계자는 “로봇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시장을 선도할 신기술 개발 및 글로벌 세일즈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양성원 기자 ysw@

OCI 익산공장, 공정안전관리 평가 최고 등급 SKT, AI로 안전한 산업현장 만든다

고용부, 상위 5% 사업장 인증

OCI가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투자와 지원을 지속한다.

OCI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4년 공정안전관리(PSM)이행상태정기평가에서 익산공장이 최고 등급인 P등급(Progressive)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안전관리(PSM)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중대산업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매년 전국의 유해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구축 및 이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

하고자 만든 제도이다.

평가등급은 P등급(우수), S등급(양호), M+등급(보통), M-등급(불량) 총 4단계로 분류된다. OCI 익산공장은 이중 최고등급인 P등급을 획득하여 정부로부터 최상위 수준의 안전 사업장임을 인정받았다. 최고등급인 P등급은 전체 평가 대상 기업의 상위 5%에 해당한다.

OCI 익산공장은 지난 2023년부터 안전문화 향상 태스크포스(TFT)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안전관리의 각 요소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험 요소를 개선해 왔다. /차현정 기자 hyeon@

‘2024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참가

SK텔레콤이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안전보건 제품·기술을 선보인다.

ICT 기술을 기반으로 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1일부터 나흘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진행되는 ‘2024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SK브로드밴드, SK오앤에스와 함께 참가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AI·IoT 기술이 적용된

안전보건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고,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좀 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작년 이어 이번 전시에도 참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2024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 SK텔레콤 ICT 패밀리사는 영상인식 AI, 지능형 안전기술 등 2개 분야에서 총 12개의 아이템을 선보인다. /구남영 기자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정부 “쌀값 추가 하락 막는다” 작년 민간재고 5만t 매입 추진

농식품부, 6월 당정협의 이행
농협·민간 미곡처리장 등 통보
품종검정 등 거쳐 양곡창고 이송

농림축산식품부가 계획대로 5만 t(t) 규모의 쌀 재고분 매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2023년산 쌀 민간 재고 15만t’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쌀값의 추가 하락을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식품부는 각 지역별 재고에 따른 매입 비중을 산출해, 지난달 28일 각 시도 및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 등에 통보했다. 매입 대상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과 민간미곡종합처리장이 보유하고 있는 2023년산 벼이며 품종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 양곡창고로 이고를 실시한다. 매입 절차는 이번 주 시작해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재배면적이 당초 목표(69만9000ha)보다 1만ha 이상 추가 감축된 68만3000~68만9000ha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더해 5만t 이상의 추가 생산량 감소를 예상한다.

지난달 2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15만t의 쌀 민간재고 해소와 관련해, 2024년 벼 재배 면적의 추가 감축을 통해 쌀 생산을 5만t 이상 줄이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또 2023년산 재고 5만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2번째)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대책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했다. 당정은 당시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대책’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농민단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정부는 15만t의 쌀 민간 재고 해소와 관련해, 2024년 벼 재배 면적을 추가로 감축해 약 5만t 이상의 쌀 생산을 줄이되 2023년산 재고 5만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협을 중심으로 10만t 규모의 쌀 재고 해소를 추진한다. 또 5000억 원 상당의 벼 매입자금 상환 기간은 3개월 연장해, 자금을 빌린 미곡종합처리장이 저가에 처분할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만

t 매입 이후에도 산지 쌀값이 안정되지(예년 가격을 회복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 “아프리카 지역 식량원조 확대 추진도 강하게 요구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어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 정책위의장은 “쌀의 무매입과 농산물 가격보장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 혈세로 쌀 과잉 생산을 더욱 부추기고 수급 불안만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수 기자 kys@metroseoul.co.kr

韓-베트남, 녹색사업 협력확대 합의

환경부, 韓-베트남 환경장관 회의
온실가스 감축 등 MOU 4건 체결

환경부가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와 ‘제16차 한-베 환경장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제1차 한-베트남 기후변화협력 공동위’ 출범으로 온실가스 감축협력의 첫발을 내디딘 것을 환영하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용경험과 국제감축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 2000년부터 장관급 회

의를 정례화하여 환경협력 전반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수요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시행해 왔다. 이번 제16차 회의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베트남 당 꾸옥 칸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환경부는 또 베트남 하티시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또는 본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양국 간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투자 급증에 따라, 그간 환경부는 베트남의 환경정책 법제화와 녹색 기반시설 수요에 맞춰 정부뿐 아니라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해 왔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양국은 이

날 베트남 최초의 순환경제형 자원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엔빈 스팀공급 사업에 국내 기업의 원활한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1월 체결한 포괄적 환경협력 양해각서(MOU)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행계획 합의문 및 주요 환경분야 협력을 구체화한 4건의 MOU를 체결했다.

한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의 환경협력 수요와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4건의 환경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해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양국의 환경협력력이 한 단계 진일보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아시아 ‘수문·수자원 관리’ 공동대응 모색

환경부, 세계기상기구 국제회의

아시아 국가들이 물 관리와 관련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에 나섰다. 1일 경기 고양에서 수자원 분야 각국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막을 올렸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3일까지 고양시에 위치한 한국수자원조사기

술원에서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수문조정패널 국제회의 및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비롯해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회원국이 참가한다. 세계기상기구는 전 세계를 6개 지역협의회로 구분하며,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지역협의회는 34개 국가로 구성된다.

1일과 2일 예정된 수문조정패널 국제회의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수문·수자원 세부 협력 추진방안’과 ‘수자원 평가 역량 향상방안’ 등을 발표하고 참여국 관계자와 논의한다.

3일 열리는 연찬회에서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우리나라의 실시간 자동유량관측, 무인기(드론)·무인선(보트)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수문조사 방법을 소개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5년간 환경분야 국가자격증 응시자 3.7만명

산인공, 올해 2분기 ‘자격Q’ 발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일 환경분야 22개 종목의 필기시험 응시 현황과 관련 산업 동향이 수록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2분기 ‘자격Q’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보집에는 ▲대기(4개 종목) ▲생물분류(2개 종목) ▲소음진동(3개 종목) ▲수질(4개 종목) ▲자연환경·생태(3개 종목) ▲토양환경(2개 종목) ▲폐기물처리(3개 종목) ▲환경위해(1개 종목) 분야 종목별 자격 취득 방법, 취득 현황 및 응시 현황 등이 담겼다.

환경 분야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연평균 필기시험 응시 인원은 3만 7641명이며, 이 기간 응시인원은 연평균 4.2% 증가했다. 연평균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종목은 대기환경기사(1만 43명)이며, 수질 환경 기사(9082명), 환경기능사(6779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감률은 생물분류기사(식물)가 34.2%로 가장 많았고, 온실가스 관리기사와 생물분류기사(동물)가 각각 33.8%, 30.4%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환경 분야 22개 종목 필기시험 설문 응답자(3만 9962명)에 따르면, 응시 인원의 64.8%는 남성이었고, 연령대는 20대(60.4%), 30대(18.6%), 40대(10.3%) 순으로 많았다. 경제활동 유형으로는 재직자가 40.6%로 가장 많았고 학생(37.0%), 구직자(15.5%) 순이다.

재직자 1만 6223명이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근무처에서 자격을 우대하고 있다는 응답은 71.8%였다. 구체적으로 채용 우대(67.5%), 수당 등 임금 우대(19.4%), 인사고과 우대(8.3%) 순으로 나타났다.

이우영 이사장은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환경 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산업계, 학계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환경에 도움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격Q’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환경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련 협회·단체, 대학 입학처와 큐넷(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3분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동결’

산업부, 상업용·발전용 소폭 인상

정부가 인상이 예상되던 3분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는 대신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은 소폭 인상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이날 민수용 가스요금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 가스요금은 소폭 인상했다.

주택용 가스요금은 지난달과 같은 MJ(메가줄)당 19.4395원을 유지하게 됐다.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 요금은 원료비가 MJ당 17.8294원에서 18.3999원으로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했다.

업무난방용 가스요금은 MJ당 21.1676원에서 21.7381원으로 늘었고, 산업용 가스요금은 하절기 기준 MJ당 18.6305원에서 19.201원으로 인상됐다.

도시가스발전용 가스요금도 원료비가 열병합용 기준 MJ당 17.6042원에서 18.1747원으로 오르면서 약간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와 기획재정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부 사이에서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얼마나 언제 올리느냐를 두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달 1일자로 민수용 요금을 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의를 된다면 오는 9월 1일까지 기다릴지, 혹은 그 전이라도 적절한 시기에 요금을 인상할지도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전기요금 전자청구서 신청하세요”

한전, 9월30일까지 이벤트

한국전력은 7월 1일~9월 30일까지 전기요금 전자청구서(이메일, 모바일)를 신규로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 행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행사기간 중이청구서에서 전자청구서로 전환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420명에게 로봇청소기, 헤어스타일러, 스마트워치, 국민관광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전자청구서는 한전ON(online.kepco.co.kr) 홈페이지나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가까운 지사로 신청할 수 있

으며, 신청 고객은 별도 절차 없이 행사에 자동 응모된다.

한전은 2009년 1월부터 전기요금 전자청구·납부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모바일과 이메일로 상세 전기요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로 신속하게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 카카오페이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고, 더존비즈온의 모바일청구서를 신청하면 전국 편의점에서 QR코드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광고 심의필 : 2022-1626-0014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대한민국에 이런 겔 하나쯤 있어야지!

국민의 겔! 남궁민의 겔! 록소안겔



테니스·골프 엘보우엔 **록소안겔**

테니스 엘보우 주요 증상

- *팔꿈치 통증, 특히 주부들에게 발생
- *팔과 손목을 쓰는 동작에서 통증



- 테니스 엘보우
- 손·손목 통증
- 어깨 통증
- 근육통, 관절통
- 타박상, 염좌(뺨)
- 요통

'짐펜트라' 보험사 환급 본격화

서정진 회장, 美 의약품 시장 열었다

(셀트리온그룹)

셀트리온 지난달부터 보험환급 美 시장 매출 확대 가속화 전망 영업 전담 현지인력 대폭 증원



셀트리온 '짐펜트라'

셀트리온에서 미국에서 판매 중인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C) 제형 치료제 '짐펜트라'에 대한 현지 보험사 환급이 본격화됐다. 영업 현장 최일선에 선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의 진두지휘로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내년 2조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1일 다수의 미국 처방약 급여관리업체(PBM)들로부터 보험환급이 지난달부터 본격 개시되면서 실질적인 처방집 등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 3월 미국에 신약으로 출시한 짐펜트라에 대해 익스프레스 스크립트(이하 ESI)와 같은 대형사를 포함한 다양한 규모의 PBM과 처방집 등재 계약을 맺고 제품을 공급 중이다. 이들 계약의 보험 환급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된다.

셀트리온은 현재까지 ESI 등 PBM을 통해 미국 사보험 시장에서 약 40% 규모의 커버리지(가입자 수 기준)

2조원 이상의 성과도 넘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셀트리온은 짐펜트라를 비롯해 글로벌 전역에서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판매 확대를 바탕으로 올해 3조5000억원 매출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회장을 필두로 짐펜트라营业을 전담할 현지 인력도 확충한다. 짐펜트라 전담 현지 인력 규모를 기존 60여명에서 100명까지 1.5배 이상 확대해 법인의 영업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짐펜트라에의 보험사 환급이 개시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물론, 이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의약품 공급 선순환 체계도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판매 본격화 단계에 진입했다"며 "보험사 환급 시점에 맞춰 담당 영업 인력을 확충하고, TV 및 SNS 등 미디어 광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며 짐펜트라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끌어 올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대웅제약-LG화학, 자가면역질환 시장 공략

전략적 파트너십... '젤렌카' 국내 출시



승사킨 것이 특징이다.

대웅제약과 LG화학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자가면역질환 시장 공략에 나선다.

대웅제약은 LG화학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젤렌카(사진)'를 국내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젤렌카'는 국내 세 번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로, 지난 2023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젤렌카 적응증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 건선성 관절염, 척추 척추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등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와 동일하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된 젤렌카 제형은 총 두 가지로, 주사기에 내용물이 미리 충전된 '프리필드 시린지'와 내용물을 자동으로 피부에 주입하는 펜 형태의 '오토인젝터'다.

특히 젤렌카 '오토인젝터'의 경우, LG화학이 도입한 환자친화적 디자인을 통해 자가 주사 환자들의 편의성을 상

뿐만 아니라 젤렌카는 개발부터 임상 연구, 품목 허가, 생산까지 모두 국내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품질 관리, 비용 절감 등에서 장점을 가진다. 국내 생산으로 인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유통 과정에서도 온도 관리, 저장 조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어 안정성 문제가 최소화됐다.

대웅제약과 LG화학은 앞서 젤렌카의 국내 유통을 위한 총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에 따라 LG화학은 젤렌카를 대웅제약에 공급하고, 대웅제약은 젤렌카의 국내 판매와 마케팅을 담당한다.

대웅제약은 이번 젤렌카 출시를 기점으로 생물학적 제제를 포함하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파이프라인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진로, 23년 연속 세계 증류주 판매 1위

하이트진로 초당 77병씩 팔려

이상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하이트진로의 소주 브랜드 진로(JINRO)가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 1위를 달성했다.

하이트진로는 '진로'가 영국 주류전문매체 더링크 인터내셔널에서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에 23년 연속 1위에 올랐다고 1일 밝혔다.

하이트진로의 소주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9740만 상자(상자당 9리터 기준)가 판매됐다. 이는 1초당 77병씩 팔리는 수준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세계 주요 증류주 브랜드 대부분의 판매량이 감소한 가운데, 진로는 2001년 이후로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진로의 판매량은 2위를 기록한 필리핀 증류주 브랜드보다 약 3배 이상 팔렸으며, 최근 위스키 열풍 주역인 스카치위스키의 주요 브랜드들의 판매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약 2배

하이트진로는 현재 약 80여 개국에 소주 제품을 수출하며 8개국에 불과하던 우선 공략 국가를 현재 17개국으로 확대해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글로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현지 가정 채널 입점을 확대하고 페스티벌 참여 및 스포츠 마케팅 등 다양한 글로벌 활동을 강화하며 제품의 접근성과 인지도, 그리고 현지 응용물을 끌어올린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최근 하이트진로는 '글로벌 비전 2030'으로 '진로의 대중화'를 선포하며 2030년까지 해외시장 소주 매출액 5000억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글로벌 증류주 No.1 브랜드인 진로를 앞세워 글로벌 종합 주류기업으로 도약시킨다는 전략이다.

한편, 해외에서 하이트진로는 외국인들이 쉽게 발음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모든 소주 제품들을 '진로'로 통합해 브랜드를 운영하며 현지 주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나라셀라, '돈나푸가타 리게아 2023' 출시

세계 최초 재활용 코르크 마개 사용 출시 기념 환경·문화보호 이벤트도



돈나푸가타 리게아 2023 /나라셀라

국내 와인 유통업계 1호 상장사인 나라셀라가 새롭게 리뉴얼한 '돈나푸가타 리게아 2023'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돈나푸가타 리게아 2023'은 지속 가능한 패키징을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먼저 새롭게 도입한 경량 병(410g)은 폐유리 90%로 이루어진 100% 시칠리아산 유리로 만들어졌으며, 기존 투명한 보르도 병에서 가벼운 녹색 부르고뉴 병으로 전환했다. 가벼운 병을 사용해 제품 운송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저히 감소시켜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돈나푸가타 리게아 2023'은 친환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해양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노마코르크 오션 마개를 사용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재활용 코르크 마개로, 해양 플라스틱 폐

카토 달레산드리아의 다른 이름인 지비보 100% 품종으로 아카시아 꿀과 꽃, 캐러멜 등 화사한 향이 마치 오렌지 꽃을 연상시키는 듯한 향이 매력적이다.

나라셀라는 '돈나푸가타 리게아 2023' 출시를 기념해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환경 및 문화보호를 위한 여러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5~6일 제주 토속음식과 와인 페어링을 즐길 수 있는 웰니스 다이닝, 제주 해양쓰레기 수거단체 '디프다 제주'와 함께 이호테우 해변 일대의 해양 정화 활동을 진행하며 클린 캠페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밍글링 파티와 돈나푸가타 와인 클래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돈나푸가타 리게아 2023'은 전국 주요 백화점(현대·신세계·롯데·갤러리아) 및 나라셀라 직영점(나라셀라 리저브·와인픽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HK이노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천"

'2023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

HK이노엔은 2023년 ESG 경영 전략과 주요 활동 및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HK이노엔은 해당 보고서에서 ▲환경을 고려한 비즈니스 운영 ▲구성원

의 성장을 고려한 성장 ▲지역사회를 위한 임팩트 창출 ▲컴플라이언스 기반 리스크 관리 강화 등 ESG 전략 방향에 맞춰 9대 중점 영역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HK이노엔은 산업 특화 주제로 '의약품 접근성'을 선정했다. 의약품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국내외 의

약품 기부 활동, 현지 의료인 교육 제공, 임직원 및 의료인 교육 캠페인, 수급불안 의약품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구개발 파이프라인 강화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 HK이노엔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HK이노엔은 올해 상반기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했다.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유한양행, 고셔병 치료제 임상1상 진입

희귀 질환 치료제 시장 공략 박차

'YH35995'는 유한양행이 경구형 고셔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이다.

유한양행이 폐암 치료제부터 희귀 질환 치료제까지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지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YH35995' 임상1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1일 밝혔다.

유한양행에 따르면 이번 임상 1상은 YH35995를 처음으로 사람에게 투여하는 시험이다. 유한양행은 YH35995를 건강한 성인 남성에게 경구 투여해 해당 물질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적 및 약력학적 특성 등을 평가한다.

고셔병은 유전적 돌연변이의 영향으로 특정 효소가 결핍돼 글루코실세라미드 등이 리소좀에 축적되는 질환이다. 이에 따라 '기질감소치료'는 기질인 글루코실세라미드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기질의 축적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YH35995' 임상 단계 진입은 유한양행이 추진하는 첫 희귀 질환 치료제 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국내 제약 업계의 중론이다.

/이청하 기자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2024.07.17(수) 14:00~17:00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前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
前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前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 연구센터 대표
前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 CIO 및
경영관리부문 대표이사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P) 수석차장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미국 주식 관련 투자 전문 애널리스트

● 행사개요

행사명: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주 제: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일 시: 2024년 7월 17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후 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록: 사전등록 무료(현장등록 5만원)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축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00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 국내외 경제상황 진단과 금융투자시장 전망
강연	15:00~15:40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 100세시대 자산관리 전략
	15:40~16:20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P) 수석차장 : 부동산시장 진단과 투자 전망
	16:20~17:00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 해외주식 투자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네이버페이, 건전한 온라인 투자문화 만든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일 네이버페이와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건전한 온라인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사이버 시장감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클린 캠페인을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보호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이사와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LS전선, 동해시 저출산 극복 지원... 1억 기탁
LS전선이 영유아 보육과 초등학생 교육 활동을 후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 사업에 나선다. LS전선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강원도 동해시에 '저출산 극복' 사업 등을 위해 1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강원도 동해시청에서 열린 기탁금 전달식에서 이상철 LS전선 동해공장장(오른쪽)과 심규연 동해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S전선



BNK부산은행, 9월말까지 '무더위 쉼터' 운영
BNK부산은행은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210개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무더위 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점 내 고객 대기공간을 활용한 운영되며, 은행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BNK부산은행



아시아나, 초·중·고생 150명 대상 진로특강
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 30일 강서영어도서관과 함께 지역 초·중·고등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 특강 프로그램인 '색동나라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색동나라교실은 작년에 이어 강서영어도서관과 함께 진행한 두번째 진로 특강이며, 참가희망인원이 많아 모집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확대했다. /아시아나항공

KCC, 홈페이지 개편... 검색 최적화

KCC가 자사 홈페이지를 새롭게 열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고 있다. KCC는 사용자 관점에서 보다 '친절하고 명확한 소통 창구'라는 의미의 K.C.C(Kind & Clear Communication Channel) 콘셉트를 바탕으로 정보 검색이 최적화한 홈페이지로 새단장했다고 1일 밝혔다. KCC는 리뉴얼을 통해 세련되고 생동감 넘치는 UI·UX 적용으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홈페이지를 선보여 방문자의 편의, 가독성,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설명이다. /김승호 기자

현대차 정몽구 재단 "기후·지구과학 기술 지속 투자"

AOGS 참가... 기후테크 세션 개최 '그린소사이어티' 연구팀 성과 공유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강원 평창군에서 진행된 '2024년 제 21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지구과학총회(이하 AOG S)'에서 지구과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K-기후테크 스타트업 세션'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상진 과장(왼쪽부터), 한국그리드포밍 강지성 대표이사, 고려대학교 이수종 연구원, 포항공대 황동수 교수, 기후테크센터 정수종 센터장, 현대차 정몽구 재단 최재호 사무총장, 조선빈 매니저가 지난달 23일 강원 평창군에서 진행된 '2024년 제 21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지구과학총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AOGS는 세계적으로 자연 재난 취약 지역인 아시아-오세아니아의 재해 근원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지구과학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3년 설립한 학회다.

널토의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K-기후테크 세션에서는 재단의 기후기술 기업가형 연구자 육성 및 사업화 지원 프로젝트 '그린소사이어티' 선발 연구팀 중 3팀(한국그리드포밍, 고려대학교 오

정리질리언스연구원, 블루카본)의 창업 경험을 공유하고 연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관계자는 "전 지구적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과 재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지속가능한 상태로 후손에 물려주기 위해 혁신 기후기술 및 지구과학 기술 발전에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KT, 독립운동가 후손 양옥모씨 '희망나눔인' 선정

올해 네 번째 '희망나눔인상' 수여 양씨, 어려운 이웃 위해 10년째 봉사



양옥모 씨가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이 수여한 희망나눔인상 상장과 상패를 들어 보이고 있다. /KT

3대에 걸친 독립유공자 집안 후손인 양옥모씨가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의 희망나눔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양씨의 부친 양승만 선생은 1927년 신숙 선생이 설립한 신창학교 교사로 활동하며 민족교육에 앞장섰다. 1930년대 중국 길림민중자위군 제3군에 소속돼 한국독립군 상사로서 항일 투쟁운동을 펼쳤던 공훈을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다. 경기도 양평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던 증조부는 3·1운동 당시 태극기와

KT는 희망나눔재단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올해 네 번째 '희망나눔인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희망나눔재단은 KT그룹이 소외계층 지원과 ICT 기반 나눔 확산을 위해 설립한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재단이다. 희망나눔인상은 나눔으로 아름다운 사회 가치를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단체에 주는 상이다.

네 번째 수상자 양씨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자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년째 봉사 중이다.

동화약품 '가송 예술상' 공모전 개최

동화약품이 예술계의 숨은 인재 발굴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장을 마련한다.

동화약품은 '2025 가송 예술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동화약품에 따르면 공모 분야는 '주제' 부문과 '콜라보레이션' 부문 2개로 구분된다.

'주제' 부문에는 접는 부채를 의미하는 '접선(摺扇)'을 재해석한 시각예술 전 부문 작품으로 지원 가능하다.

'콜라보레이션' 부문은 부채 장인과 협업 가능한 작품으로 장르 제한이 없다.

최근 3년 이내에 개인전 또는 단체전을 1회 이상 개최한 만 4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장선운 고문당인쇄 대표 금탑훈장 수훈

제3회 여성기업주간 신청민 MS가스 대표 은탑훈장

'제3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고문당인쇄 장선운 대표가 금탑훈장을, MS가스 신청민 대표가 은탑훈장을 각각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일 저녁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3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기회를 여는 K-여성기업'을 슬로건으로 한 올해 여성기업주간은 지난해와 같이 여경협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여성경제인 단체가 공동 주관해 마련했다.

과 젊은 벤처기업인 등 400명이 참석해 다 함께 힘을 모아 글로벌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한 축이 되자는 결의를 함께 다졌다.

개막식에선 모범 여성 기업인에게 금탑훈장 1점, 은탑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 표창 4점, 국무총리 표창 6점 등 총 13점의 정부포상이 돌아갔다.

금탑훈장을 받은 장선운 대표(사진)는 지난 99년 바통을 이어받은 후 매출 규모가 30억원이던 회사를 설비 자동화, 해외 시장 진출, 신규 고용 76명 등을 통해 546억원 규모로 성장시킨 업적을 인정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구 신임 본부장 취임 (서울강원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양한 실무와 조직관리 경험에 중점을 둔 인사를 단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용구 전(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지원실장(사진)이 '제14대 서울강원지역본부장'으로 취임했다고 1일 밝혔다.

이용구 신임 본부장은 충남 출신으로 지난 199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했다. 이후 비서실장, 인력지원실장 등을 역임해 행정 실무 역량을 쌓아 왔다.

건보공단은 이용구 본부장이 건보공단 내 주요 보직을 맡아 온 만큼, 향후에도 탁월한 리더십으로 지역본부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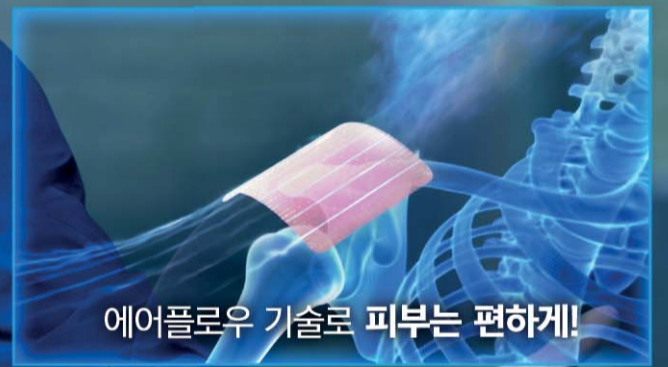
- ◆가천대 길병원 △병원장 김우경
- ◆조달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교육부 유지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박지영
- ◆뉴스시스 ◇임사 △정치부장 정복용 부장 ◇송진 △스포츠부장 문성대 부장직대
- ◆신한은행 ◇본부장 신규선임 △Tech 혁신담당 이국희
- ◆IBK투자증권 ◇임원 승진 및 신규선임 (본부장) △경영전략부문장 전무 문찬걸 △리서치부문장 전무 용대인
- ◆하이투자증권 (임원 신규 선임) ◇상무부 △준법감시본부장 김상우
-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직위승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 ◆한양증권 ◇신임 센터장 △ST센터장 신인식(상무)

부음

▲한정수씨별세, 한상문(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감사부장)씨 부친상= 30일, 경기 수원 연화장 장례식장 206호, 발인 3일. 031-218-6500

JEIL 제일헬스사이언스

통증엔 케펜텍으로 Tech 하세요!



케펜텍 Cool

케펜텍 HOT

케펜텍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품 설명서 참조 및 본사 마케팅부(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3 제일헬스사이언스(주) Tel. 수신자부담 080-549-0002)로 문의 바랍니다.

광고심의필 : 2021-1584-004200

6월 모평, 영어 1등급 1.47%... 전체적으로 '불수능' 수준

영어 1등급 비율, 도입이래 최저 국어·수학, 지난 수능 표준점수 비슷
오승걸 평가원장 "9월 모평·수능 공교육 과정 수준에서 출제할 것"



2025학년도 수능 대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4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지난달 4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에서 영어 1등급을 획득한 수험생이 전체 1.47%에 그치며 '불영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적으로도 '불수능'으로 평가된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난이도 조절 논란이 예상된다.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일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평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원은 앞서 6월 모평을 앞두고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어영역을 비롯해 수학, 영어 모두 매우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 영역 만점자는 6명이다.

◆ 국어·수학·영어 다 어려웠다
정부 방침에 따라 '킬러문항'이 배제된 이후 국어, 영어, 수학영역에서 사실

상 모두 어렵게 출제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월 모평에서는 특히 영어영역 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1등급은 39만2110명 중 5764명으로, 1.47%에 그치며, 영어 절대평가 도입이래 평가원, 본수능 모두에서 1등급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1등급 비율이 4.71%였던 지난해 수능보다 3.24%p 줄었다. 영어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넘으면 1등

급을 얻을 수 있는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수험생의 경쟁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상대평가 1등급이 상위 누적 4%, 2등급이 누적 11%라는 점에서, 이번 영어는 이보다 1등급 비율이 낮다. 6월 모평 영어 2등급 누적은 9.47%다.

국어와 수학영역도 까다로웠다. 두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각각 148점과 152점으로 '불수능'으로 평가된 지난해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수학은 통합수능 도입이래 "가장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1등급 내 점수 차를 보면, 최고점 152점, 최저점 135점으로 17점 차가 난다. 지난해 본수능 1등급 최고점(148점), 최저점(133점) 점수차는 15점으로, 이보다 더 크게 발생했다. 상위권 변별력이 크게 형성된 셈이다.

국어영역의 경우, 1등급내 표준점수 최고점과 최저점은 각각 148점, 132점으로 16점 차가 발생했다. 지난해 본수능 최고점(150점), 최저점(133점)의 점수차(17점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국어·수학영역은 최상위권 1등급도 풀기 어려울 정도로 상위권 변별력 확보되는 수준으로 보인다"라며 "영어과목도 절대평가 과목임에도 상대평가 때보다 더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매우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난이도 조절 어려워...수능, 공교육 맞춰 출제'
출제본부는 이번 평가에서 '난이도

조절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출제경향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도 등 올해 응시 집단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9월 모평과 수능은 공정수능 기조를 유지해 공교육 과정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어영역의 경우,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적정 수준의 난이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출제하겠다"고 했다.

6월 모평 응시자는 총 39만2783명이었다. 47만4133명이 원서를 접수했지만, 8만1350명(17.1%)이 시험을 보지 않았다.

전체 응시자 가운데 고교 3학년 재학생은 31만8906명(81.1%),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 'N수생'은 7만3877명(18.8%)이다. 접수 당시 N수생은 8만8698명이었지만, 1만4821명(16.7%)이 결시했다. 지난해 6월 모평에서 N수생 응시자 비율은 19.8%였지만, 올해는 1.0%p 하락했다.

/이현정 기자 lhj@metroseoul.co.kr

뭣 "일상의 변화, 청계천의 변화보다 더 가치 있어"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기후동행카드 등 일상혁명 정책 꼽아
광화문 조형물 설치엔 "귀 더 열 것"



오세훈 서울시장 1일 서울시장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1일 서울시장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건 거대한 프로젝트나 시설물이 아니다"며 "누구나 어디서나 차별 없이 매일 누릴 수 있는 일상에서의 변화, 축적돼 가는 일상의 변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일상생활의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늘 생활 속에

서 느껴지는 하루하루 만들어지는 조그맣고 소소해 보이는 변화가 청계천의 변화보다 더 가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관 '기후동행카드' ▲스마트위치와 전용 앱을 통해 건강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형 헬스케어 프로그램 '손목닥터9988' ▲청소노동자들의 출근 편의를 돕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등을 대표적인 일상 혁명 정책으로 꼽았다.

오 시장은 "손목닥터9988 '500만 시대'를 목표로 일상 속 걷는 운동과 함께 식습관 관리를 도와 '건강 장수'라고 하는 인류 보편의 목표에 한층 다가가는

선도도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와 약자를 생각하는 교통 체계 혁신으로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을 완성해 나가겠다. 대중교통 이용부터 문화 활동까지 카드 하나로 해결되는 기후동행카드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더해져 더욱 진화해 나갈 것"이라며 "새벽과 심야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자율주행버스를 확대하고, 고지대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형 교통수단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극기 계양대를 만드는 문제는 귀를 더 열 것"이라며 "저는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판에는 반응한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하겠다"고 말을 뺐다.

시는 지난 6월 25일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계양대를 세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권 도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장 하라고 뽑아냈는데 임기 반환점 도는 시점에 벌써 대권 운운하는 것은 유권자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청계천보다 더 중요하다"며 "아마도 저를 4번씩이나 시장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서울시민들은 이미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ik1@

경기도 '돌봄의료 서비스', 9개시로 확대

고양·화성·시흥시 추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대상자 제한 없는 방문형 의료·복지 통합서비스인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가운데 7월 1일부터 일산복음병원(고양시), 동탄시티병원(화성시), 신현연합병원(시흥시)에서도 돌봄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지난 2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소재지인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6개 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군 공모를 거쳐 3개소가 추가됨에 따라 서비스 지역도 6개시에서 9개시로 늘었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돌봄의료팀이 서비스 신청자의 집을 방문해 진찰, 처방, 활력징후 측정, 각종 검사, 영양 교육 및 상담, 생활습관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이 필요할 경우 지역 내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안내도

한다.

기존 재택의료 사업과 달리 장기요양 등급자 등 대상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도민일 경우 누구나 방문의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에서는 돌봄의료매니저를 통한 기초조사 후 돌봄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9개 시에 거주하는 돌봄의료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지역 서비스 병원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간단한 상담과 건강평가를 거쳐 돌봄의료팀이 집을 방문한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5 | 해질 19:57

7월 2일 (화)
음력 : 5월 27일

수도권 날씨
24~26°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이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20/26, 동두천 21/26, 가평 21/25, 파주 21/25, 서울 24/26, 양평 22/26, 인천 23/25, 수원 24/26, 용인 24/26, 백령도 19/23, 평택 22/2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대만 TSMC 2나노 수요 증가 등으로 내년 50조원 투자 계획 /사진 뉴시스
▲ 프랑스 1차총선 결과 범여권 20.76% ...국유 33.14%·파파연합 27.99%

▲ 日 신형 H3 로켓 발사 성공...지구관측위성 '다이치 4호' 궤도 안착
▲ 바이든 TV토론 완패는 시간 탓?...보좌진 "오후 4시까지 안전적" 해명



▲ 펠로시, '토론 참사' 바이든 비호... "트럼프 치매설 있어" /사진 뉴시스
▲ 일자위대 70년, 미군과 일체화 진행... '공격의 창'으로 바뀌나



식품·제과업계
노가리·떡대 등
어른 간식 선배
니



Life

셀트리온
보험환급 본격화
美시장 공략
L2



“플라스틱의 종말 향해... 新소재로 편익·환경 다 잡을 것”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더데이원랩

“많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일회용품, 그 중에서도 편익 때문에 감축할 수 없는 플라스틱 봉투를 친환경소재로 대체해 인류가 지속 가능한 편익을 누리게 하겠다.”

이주봉 더데이원랩 대표의 말이다.

더데이원랩은 플라스틱 대체 신소재를 개발하는 회사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구조를 변형해 물리적인 특성 자체를 플라스틱을 대체 할 수 있는 복합소재로 만드는 게 목표다.

이주봉 대표는 “더데이원랩의 궁극적인 목표는 ‘플라스틱의 종결’을 가능케 하는 소재와 기술개발로 더 나은 지구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플라스틱은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주요 소재다. 싸고 튼튼하며 변형이 쉽다. 그래서 엄청난 양이 사용되고 버려진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단점이 명확한 소재다. 환경오염을 야기한다. 분해에 수백년이 걸리고 생태계를 교란한다. 미래 분해 과정 속에 유해화학 물질보다 더 큰 위협을 가져올 것”이라고 플라스틱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했다.

더데이원랩은 전분과 셀룰로오스의 탄수화물과 단백질 구조를 바꿔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킨 친환경 소재를 개발했다. 흔히 ‘비닐봉투’로 불리는 일회용품을 대체하는 봉투의 제작 소재로 사용한다.

더데이원랩의 소재는 플라스틱에 비해 가격이 크게 높지 않고 사용성도 확보했다. 제작 시 탄소 배출이 적다. 퇴비화, 혐기성소화 등 다양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분해된다. 공정 난이도가 높은 펠릿(얇은 조각을 녹이고 길게 뽑아 작은 알갱이로 썬 형태) 제작에 성공해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다.

이 대표는 창업 3년만에 공정·제품화팀과 소재 연구개발(R&D)팀을 보유한 만큼 빠르게 성장했다. 세계 최대 신기술 각축장인 ‘소비자가전전시회(CES) 2024’에서 바이오매스 유래 플랫폼 소재인 ‘리타치(RETARCH)’로 ‘지속가능성 부문 혁신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 장관상, 도전 K-스타트업 2021, 국무총리상, KDB 스타트업 데모데이 대상 등 화려한 수상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의 초기 투자 등 시드머니를 확보해 연구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던 게 성장을 가속화시켰다는 설명이다.

이주봉 대표는 “초기 자본은 사비를 비롯해 여러 대회 상금과 자본 지원금,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초기 투자 등으로 확보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시드 투자 후에도 계속 성장을 도와줬다. 시리즈A 리드 투자자로 투자를 이끌었다”며 “단순히 자금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방향을 잘 못 잡을 때마다 ‘이런 부분은 어떤가?’라며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상생해 나갈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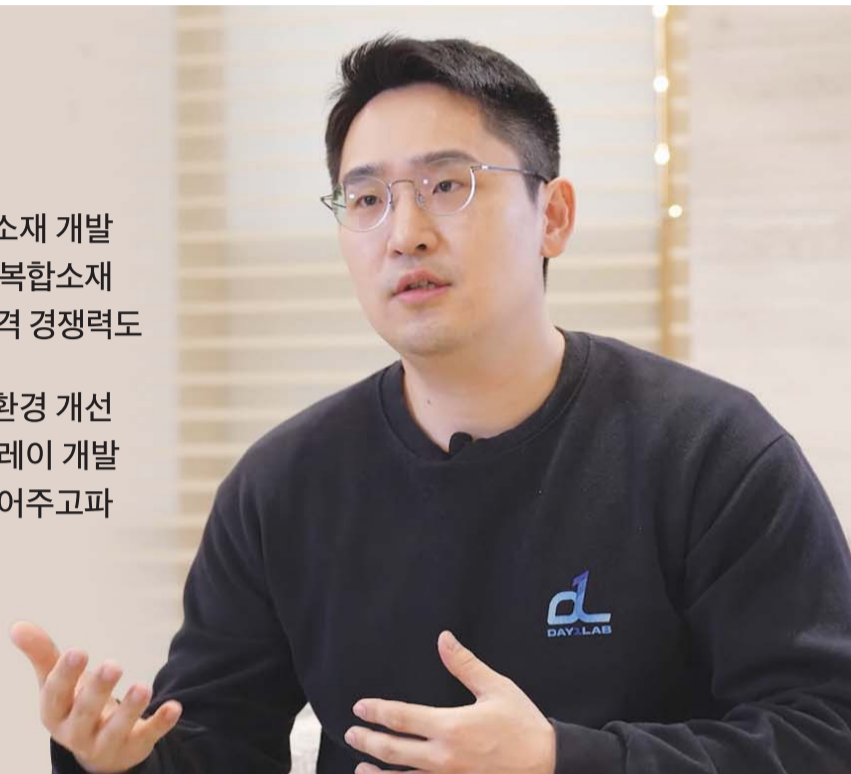
그러면서 “투자자와 함께 오렌지플래닛에 머무르는 동안 또 한번의 성장을 맞았다. 센터장님과 ‘오렌지톡’으로 마일스톤을 점검하고 인사이트를 얻었다.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과도 정보를 교류 할 수 있었다. 이는 공감대, 네트워킹 등 소통에 특화된 장소다. 스타트업에는 개발 단계부터 출시까지 모든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주봉 대표와의 일문일답.



플라스틱 대체하는 친환경 신소재 개발
탄수화물·단백질 구조 변형한 복합소재
탄소배출 적고, 분해 쉬워... 가격 경쟁력도

플라스틱의 편리함 지키면서 환경 개선
봉투 시작으로 식품 패키징 트레이 개발
미래세대에 더 나은 환경 만들어주고파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소재 개발이 쉽지 않았을 텐데.

“당연히 쉽지 않았다. 단순히 잘 분해되는 소재를 만드는 게 아니다. 먹어도 괜찮은 물질을 활용해 플라스틱만큼의 사용성을 담보해야 했다.”

신소재 개발의 어려운 점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우유 단백질, 해조류로 시작했다. 소재로 필름을 만들어야 하는데 찢어짐, 물, 불에 대한 내성 이슈와 마주했다. 수많은 착오와 검증을 거치며 ‘리타치’를 만들었다.

리타치는 만두피를 생각하면 된다. 전분을 강화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복합소재다. 그래서 팝콘이나 ‘달고나’에서 나는 향이 난다. 달달한 냄새다. 현재 세계적으로 2~3개 기업이 해당 원천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장점은 사용성이다.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도 크다. 바이오 베이스 소재라 탄소가 적게 나온다. 미세플라스틱도 나오지 않는다.

초기에는 신소재이다 보니 생산 업체들이 꺼려 생산이 어려웠다. 설비 고장 우려 때문이었다. 공장을 설득하려면 전례가 필요했는데, 없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그래서 작은 설비를 직접 만들어 생산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업체들을 설득했다.

한 번은 펠릿을 보관하는 공장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다. 들짐승이 우리 물건에서 좋은 냄새가 나니까 물려들었다는 이야기였다. 제대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환경 친화적 소재 개발에 확신이 들었다. 현재 우리 소재는 생산 업체에서 따로 보관한다.”

-요즘 편의점에서 보이는 친환경 봉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우위가 있는가.

“경쟁자보다는 보완자 포지션으로 접근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사용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봉투는 박테리아, 곰팡이 같은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 혹은 물과 메탄가스로 분해된다. 옥수수 전분을 미생물에 게 공급해 생산하는 소재(PLA), 석유로부터 생산하는 유연한 복합소재(PBS, PBAT 등) 등이 그 예다.”

하지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사용 중 소재가 녹아 없어지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퇴비화’라는 특별한 조건에서만 분해되도록 만들어진다. 약 60℃의 온도와 70%의 습도, 밀폐된 환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때문에 자연에서

분해되기 어렵고 미세플라스틱도 배출한다. 우리 봉투는 섭씨 24도 기준 해양 환경에서 14일, 섭씨 15도 토양 환경에서 60일이면 완전 분해된다.

스타트업이다 보니 우리 제품으로 모든 걸 완전히 대체하기는 곤란하다. 더 좋은 소재로 바뀌어가는 제안이자 과정의 일환이다. 탄소 배출을 감소하고, 단가도 더욱 합리적이고, 재활용 효율도 개선하는 방향에서 생분해성 봉투와 보완관계라고 표현하고 싶다.”

-더데이원랩의 기술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나.

“그렇다. 지금까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재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없지 않았다. 플라스틱의 유해성이 밝혀지면 서부터 계속 있었다.”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논할 때 지구와 후세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공감을 많이 얻는다. 하지만 플라스틱이 문제가 있다고 사용을 줄이는 건 단기 해결책에 불과하다. 플라스틱이 주는 편익은 상당하다. 당장 온갖 포장용기, 배달용기, 트레이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자. 불편함이 상당할 것이다.

결국 플라스틱이 주는 편익을 지키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게 우리 일이다. 생태계와 지구환경에 이로운 기술을 개발해 모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2037년이면 더 이상 버린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시기가 온다. 편익 때문에 감축할 수 없는 봉투를 우리 소재로 대체해 편익과 환경 모두 잡고 싶다. 사람도 지구도 모두 나아지리라 믿는다.”

-CES에서 인정받고 투자도 받았다. 앞으로 할 일이 많겠다.

“현재 더데이원랩은 일회용품을 대체하는 봉투생산과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비닐봉지, 지퍼백과 같은 유연 포장용기 시작으로 식품 패키징 트레이 등 고강도 플라스틱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ESG에 관심 있는 기업들과 납품 논의를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는 간편식 봉투다. 일단은 회사 간편식 코너에서 사내 직원들이 사용하는 봉투를 타깃으로 삼았다. 배달, 편의점으로 확대도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 스텝은 식품 패키징 트레이다. 봉투와 트레이를 대체해 미래 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시몬 바일스, 美 체조 선발전 압도적 우승...파리올림픽 간다 /사진 뉴스스
▲‘울산이적 논란’ 강원 야고, 에이전트 는 FIFA에 제소

▲프로축구 경남, ‘멀티 플레이어’ 박한 빈 영입
▲재계약 대신...풋 매체 “토티넘, 손흥민 1년 연장 옵션 발동 예상”



▲주장 완장 달고 종횡무진 링가드... FC서울은 3연승 신바람 /사진 뉴스스
▲이수광 KBL 총재 “프로농구 발전 위해 모든 역량 쏟겠다”